

전 남

목포發 부산行 열차 끊긴다

순천~부산 구간만 운행 ... 이용객들 불편 예상

코레일측 "이용률 저조 누적 적자 해소 불가피"

목포와 부산을 잇는 하늘 길이 지난 2000년 끊긴데 이어 열차운행까지 중단돼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는 순천~부산 구간으로, 목포~순천 구간도 광주 송정~순천 구간으로 각각 축소돼 목포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는 열차는 사라지게 됐다.

이제 목포에서 부산이나 전남 동부 권으로 가려면 광주 송정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목포와 부전역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2편씩이 출발했으며 소요시간은 7시간이었다. 코레일은 "목포~부산 구간은 상정성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다녔지만, 철도선진화 계획으로 오는 2012년까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수익성 문제로 목포~부산 항공 노선이 폐쇄됐고 같은 이유로 철길마저 없어지면서 이제 목포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은 버스만 남게 됐다.

1일 생활권인 시대에 목포와 부산간 항공노선과 열차노선이 모두 중단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동서화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열차노선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목포 시민단체들은 "목포와 부산간의 열차노선을 중지한다는 것은 영·호남 화합의 끈을 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회사경쟁이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노선을 중지한 것은 목포지역 고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문화상' 공모

단편소설 등 5개부문

목포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허영만)는 신인 및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회 목포문화상'을 공모한다.

출품작은 신문이나 문예지에 발표하지 않은 단편소설·희곡·시·수필·동화 등 5개 부문의 순수 창작물로 올해도 목포문화상으로 우선점수 하한 된다.

당선작은 오는 10월 1일 발표되며 ▲단편소설·희곡 700만원 ▲시 500만원 ▲수필·동화 3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061-270-8400)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감성돔 치어 방류

목포수협(조합장 직무대행 김원길)은 지난달 30일 무안군 현경면 흥룡유지역 해역에서 감성돔 치어 16만 마리를 방류했다. 수협은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담양 화재 발생 두배이상 줄어

올 111건... 3억여원 피해

담양지역에서 상반기 동안 발생한 화재 발생건수 및 인명·재산피해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에 따르면 올해 모두 111건의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 1명과 3억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 118건(51%), ▲인명피해 7명(87%) ▲재산피해 5억9000여만원(64%)이 각각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인명피해는 전년 8명(사망 2·부상 6)에서 올해 부상 1명으로 줄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64건으로 57%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전기 22건·기계 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양 소방서 관계자는 "올 상반기 화재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불철 찾은 비로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임야화재가 크게 감소하고 올해 중점추진 중인 화재피해 줄이기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신안 '천일염 명품화' 워크숍

농진청 개칭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 청장)은 최근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와 태평면에서 '천일염 명품화 연구'를 위한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촌진흥청 천일염 명품화 연구 TF팀을 비롯해 전문가·현장 명예연구원·신안군 천일염 관계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일염 우수성과 현장 애로사항 및 과제발굴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30일~5월 1일 녹색기술 현장지원단

을 구성해 영광군과 신안군 도초·비금면을 방문, 세계 제일의 천일염 만들기 위한 현장 요구 청취와 기술 지원을 한 바 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천일염 생산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천일염 우수성 규명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현장 워크숍은 고품질 천일염의 상품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정종득 목포시장

“동북아 중심항만 꼭 만들것”

“국제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동북아 환만·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4년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의 도시목포’를 이끌어갈 민선 5기 정종득 시장의 취임 일사이다.



지사회 건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글로벌 인재육성과 예술·문화·스포츠창달 등 7대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열인'하겠다고 역설했다.

정 시장은 "경험한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하나 되는 '화합의 시장', 목포의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시장'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정 시장은 "지금까지 참체되고 소외된 도시에서 탈피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생동감 있는 도

시 정 시장은 "후세에 시민들로부터 훌륭한 업적을 쌓은 시장으로, 또 재직기간이 목포역사에 있어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많은 발전을 했던 시기로 평가받는 게 유일한 소망"이라며 "시장을 그만두더라도 목포의 발전을 위해 소시민으로 남아, 결초보은의 각오로 처음 목포에 와서 '삼학도에 뼈를 묻겠다'던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민들도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 건설' 비전의 실현을 위해 뜻한 한데 모아주시고 적극 성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새로 시작하는 임기 동안 언제나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라는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겨 시정을 꾸려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인재 육성·문화 창달 등 7대 시정 목표 달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연구·지원 시설 조성

시로, 25만 목포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사업인 목포대교 건설·목포 신항 확충·북항 개발·삼학도 복원화·남교동 공설시장 35층 쌍둥이 빌딩 재건축·서산·금곡 지구 및 대성동 재개발·성 마카엘 기념 대성당 건립·대양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목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시설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 시장은 "목포시의 비교우위이자 자산인 해양·관광·물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 목포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편 품격 있는 선진 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수산식품 지원센터 등 고부가가치

▲경제 활성화로 잘 사는 목포 건설 ▲국제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 건설 ▲동북아 환만·물류 거점도시로 도약 ▲원도심 활성화 기를 마련 ▲함께 사는 북

화순 자연휴양림 새 단장

백야산·한천 시설물 도색 등 리모델링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화순군이 직영 자연휴양림 시설을 새 단장했다.

화순군은 직영 관리하고 있는 백야산과 한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숲 속의 집 기타 편의시설물에 대한 방역소독과 방수처리, 내·외부 도색 등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특히 침구 등 숙박시설 위생상태와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안전시설 이상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야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숙박시설 12동 14



숲속의 집(숙박시설 6실·세미나실 1실) 등을 갖추고 있다.(사진)

한천 자연휴양림은 물물매장 및 '숲속의 집'(숙박시설 11동 14실)·잔디광장 2개소·계곡정비로 조성된 물놀이장 등 특색 있는 가족단위 놀이시설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윤수기자 unsu@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010-8004-5900). ▶펜션건물(투자,지역,인대).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대가 7억.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펜션 용지.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비다가 보이는 전당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함.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나대지. 서구 생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편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전입로. 매매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식당, 전원주택.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옆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요원. 조방양호.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식당, 사옥. 서구 마루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매가 11억. 서구 농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전원주택. 북구 화양동 대지433㎡, 전입1,994㎡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8000만원. 조방 경관양호.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364-8700. H. P.010-4608-3700. ▶아파트. 광산구 소재지 아파트 125㎡ 11억 4900만. 4900만. 4900만. 4900만. ▶근린상가. 광산구 소재지 건물 125㎡ 5800만. 5800만. 5800만. 5800만. ▶근린주택. 광산구 소재지 대지/건물 242/435 3924만원. 2924만원. 2924만원. 2924만원. ▶상가주택. 광산구 소재지 대지/건물 112/34 2억 1940만. 1940만. 1940만. 1940만. ▶토지(전/답/임야/대지). 광산구 소재지 임야 11900/3600 3900만. 3900만. 3900만. 3900만.